

‘독주’ 이재명 호남경선서 본선직행 확정 주목

25~26일 광주·전남·전북 경선

이재명 과반 승리면

민주당 대선주자 사실상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더붙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구·경북과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 잇따라 대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사는 4번의 지역순회경선에서 4연속 과반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고, 사실상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1차 슈퍼위크’에서도 거침없이 과반 득표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 오는 25~26일 곧바로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 ‘매직넘버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호남의 선택’이 이번 민주당 경선의 결선투표 여부를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1차 슈퍼위크의 투표율이 77.37%에 달해 “민주당 경선이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호남지역 순회경선과 오는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사실상 민주당 대선 주자의 이름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슈퍼위크에서 이 지사는 51.41%를 득표하며 1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날 강원 경선에서도 과반을 얻었고 전남 대구·경북에서도 승리, 지역 경선 4연승을 달렸다. 무엇보다도 이 지사는 경선 초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슈퍼위크에서 총 누적 투표 결과 다른 후보들을 20%포인트차 이상으로 앞서며 5연승을 기록, 독주체제를 이어갔다.

이번 민주당 경선의 관전포인트는 무엇보다도 결선투표가 치러질 지 여부다.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진행되는 결선투표에서는 하위권 후보간 합종연횡이 가능하기 때문에 2~3위 후보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연합뉴스

가 결선투표에서 1위 후보에 역전을 노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지사의 독주가 계속되며 과

반 이상의 득표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결선투표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는 총 25만3762표를 얻어 현재까지 지역 순회경선 결과 등을 모두 합한 총 누적 득표율 51.41%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에 따라 호남 민심의 향배도 더욱 중요해졌다. 이날 현재, 이 지사는 지역순회경선과 슈퍼위크를 합쳐 누적 득표수 28만5856표로 2위 이낙연 전 대표(17만2790표)를 10만표 이상 따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과 26일 치러지는 광주·전남·전북 순회 4경선에서 10만표 이상을 승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추석 연휴인 오는 21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은 온라인투표를 시작, ‘추석 민심’이 투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타지역 민심’이 자연스레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나누는 ‘추석 밭상 민심’을 통해 전국의 투표 결과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호남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가 5연속 과반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형성했고, 이 전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 2배 이상의 차이로 이 지사를 이겨야만 추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 민심은 ‘당선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전국 투표 분위기가 호남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만약 호남 경선에서 큰 차이로 이 전 대표가 이기지 못하고,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 지사의 독주가 계속된다면 민주당 경선은 2차 슈퍼위크에서 대선 주자의 운판이 사실상 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기대보다 많은 과반 지지에 감사”

“호남경선 성심 다해 호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강원도 순회 경선 및 1차 슈퍼 위크에서 각각 50% 넘는 득표를 한 것에 대해 “기대보다 많이 과반의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대보다 적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대보다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팬데믹,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장 사회로 갈 수 있다”면서 “성장사회로 나아가고 공정한 규칙이 작동되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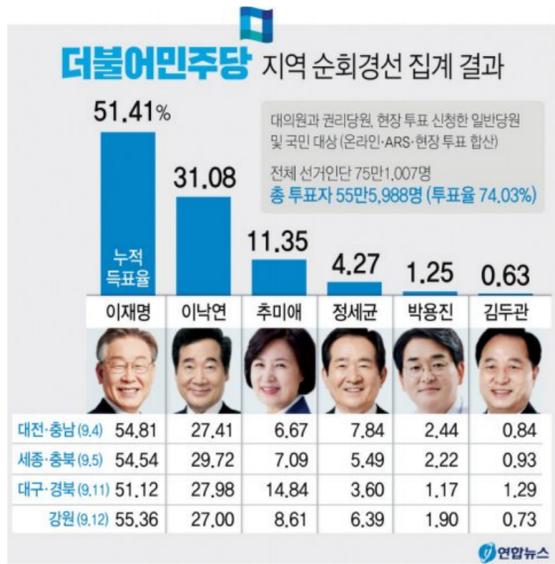
이어 “진심으로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거기에 부합한다는 점을 열심히 읊소하겠다”면서 “제 장점과 과거 성과

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1차 국민·일방당원 선거인단 투표에 이어 민주당 대선 경선의 두 번째 승부처로 꼽히는 오는 25~26일 호남 경선 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략은 없다. 성심을 다해 국민에게 호소드리고 저의 장점과 과거의 성과들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께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설명드리고 제가 그에 부합하다는 점을 열심히 읊소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성장사회, 합리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제가 합당하고 역량 있다는 점을, 과거로부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서 자그마한 성과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의 개발 수혜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기표 김해를 당협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 아들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면서 “너무 터무니없다. 4대 보험 가입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보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